

수요 인터뷰

불교 전문 전화상담기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가 최근 개동 5주년을 맞아 5년간 상담 내용을 정리, 분석했다. 5년간 총 15,500여건의 이른 자비의 전화 상담은 1년에 4천9백86건으로 매년 1천여건씩 증가해 '물질 풍요 속에 정신 황폐'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전화상담뿐 아니라 고민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문화강좌 등의 프로그램 개발에 여념이 없는 회장 정덕스님을 인과선원에서 만났다.

자비의 전화 개동 5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5년을 평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급변하는 개동기반에 앞서 중간 평가를 받는다는 설정으로 상담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5년간의 전화상담을 분석해 보니 상담빈도가 부부-종교-가정-청소년-인생문제 순으로 나타나더군요. 부부문제가 가장 많은 상담을 차지하고 있어 의외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유형은 2,3대의 사회

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문제는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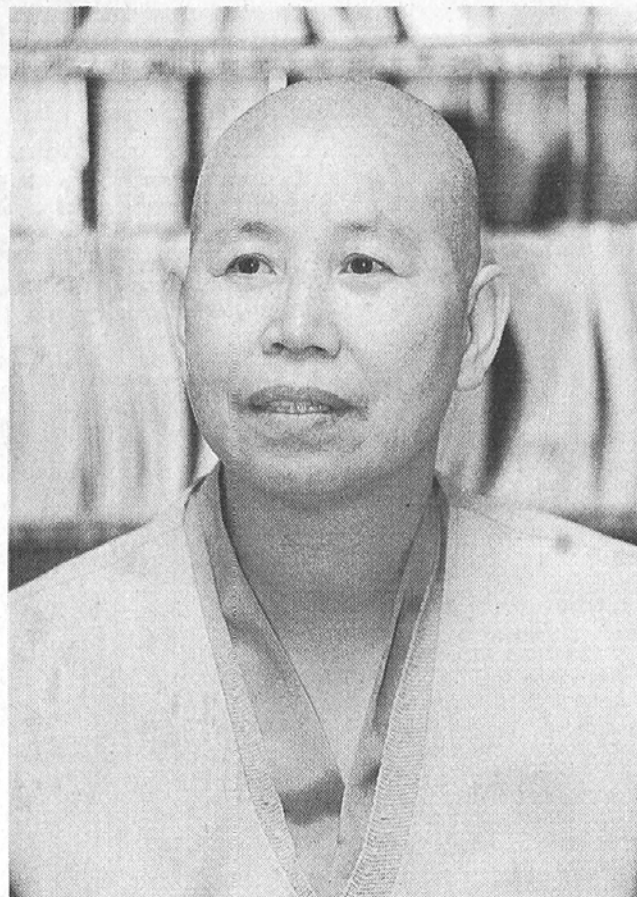
법제를 개선하거나 처벌을 강화한다 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시정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비의 전화는 지난 5년동안 고개에 '상담포교'라는 신기원을 수립했습니다. 전화상담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1백80명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고차 전화 상담실만 2개 있었지만 이제는 45명 수용가능한 강의실과 3개의 상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시간도 12시간에서 24시간 철야상담체제로 바뀌었고 팩스를 이용한 상담도 개설했습니다.

자비의 전화는 전화상담 이외에도 생활꽃꽂이, 성훈따꾸기 등의 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가정 '佛'한



개동5년 '자비의 전화' 회장 정 덕 스님

“고민있는 불자는 전화하세요”

‘내가 잘못이다’라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수행 정보망 ‘불교 114’ 개설·내년 법인화등 추진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자비의 전화 역할이 무척 크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자비의 전화를 찾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매우 성공적이라 평가합니다.

부부, 청소년문제도 가정문제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심각한 사회문제가 가정에서 기인한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을 까요. 그 원인이 파악되면 문제해결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후원가족들 살림도와

▲요즘 우리는 서로 참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해버리고 마는 자기중심이 강합니다. 자비의 전화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공부방, 학원비미련은 물론 용돈도 충분히 주었는데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아이들이나 남편도 문제가 있지만 본인에게 원인이 있지 않은지, 부처님께서 인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자비의 전화는 문제가 자기에게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대화를 나누는 길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의 원인

점토시기 및 가훈추주기 등의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가정생활에 활력을 주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펼치려면 재정 확보도 만만찮을 텐데요.

▲자비의 전화는 정규교육을 받은 상담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담원은 1백80명으로 3월에 한꺼번에 전화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자원봉사로 진행되며 이들이 또한 후원가족이 되어 개달 일정액의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살림살이가 바쁘지요.

그렇지만 상담원들을 볼때 마다 부처님이 다른곳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화상담 자원봉사를 위해 발레는 받아하고 시간을 쪼개서 남을 위하는 이타행을 실천하는 상담가족이 그대로 부처님이어서 항상 마음이 뿌듯합니다.

전화상담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불교계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전화상담은 처음 위기상황극복에서 출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화상담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불교계는 여기에 포교라는 룬까지 주어져 있어 모든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먹고 살만 하니 할 일 없이 전화하는 사람에게 상담까지 해주냐’며 전화상담을 부정적으로 보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모릅니다. 대부분의 고민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주변에서 도와 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불교계의 상담전화는 고민을 호소하는 이들의 심리과약을 위한 상담학이 부족합니다. 부처님이아말로 근기에 따라 법문을 설한 최고의 상담자이지 않습니까. 학계에서 ‘불교상담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의 병 고치는 명의

93년 2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임기 중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진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간병인회, 원심회 등과 함께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밖에 자비의 전화는 다

양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교계와 일반인들이 불교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 114’와 급변하는 개동기반에 지역여론 수렴을 위해 컴퓨터 통신망에 상담실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담원 교육을 위해 공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스님은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있어 주변에서 ‘어머니 스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솔선수범을 보여 상담원들의 긍지가 있는 편인데 상담원과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출가할때 중생의 마음과 육체의 병을 고치는 명의가 되겠다고 발원했습니다. 남을 도와준다고 보다 저의 할 일을 할 뿐이지요. 자비의 전화를 받고 부처는 상담원들이 힘에 부치는 까다로운 상담을 저에게 소개하여 요즘은 하루에도 1백여통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사할로 전화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능력이 되는 대로 저도 성심껏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는일이 여러가지여서 모두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담원들에게는 항상 원을 세워 일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일이 좋은 일이면 꼭 성취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때문에 괴로울 때 도리어 그들을 통해 자기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상대에게 참회할 때 불국토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준엽 기자)

나의 수행일기

나는 부처님 말씀가운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든다는 ‘일체유심조’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좋은쪽으로 생각하니 우선 내마음이 편하고 인연들과 다툼이 없어 좋다.

나와 부처님과 친한날은 중학1년 때 외할머니를 따라간 춘천 안마산 보광사 법당에서였다. 우리집에 다녀 오셨던 외할머니께서 나와 어머니를 데리고 보광사 법당의 부처님을 참배한 것이 인연이 된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시절의 인연이 도래한 것이라 여겨진다.

나의 어머니께서도 지극한 신심으로 사신 분이다. 어린 6남매를 거느리고 사시면서도 부처님 도량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절에 가시기 전날 저녁에는 큰상을 펴 놓고 설교하기를 시키셨다. 쌀을 고르며 부처님 이야기를 해주시곤 하셨는데 참 재미나는 이야기였다.

군복무를 마치고 재대하여 곧바로 철도공무원시험을 보아 지금의 청량리기관차사무소로 발령받았다. 아들이 재대하고 취직도 되니 어머니께서는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절에 다녀오시며 주지스님의 취직선물이라며 작은 책자 한 권을 가져오셨는데 부모

허기림 (한국불교교화원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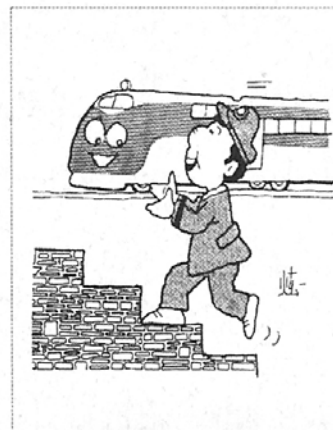


로 장엄한 청량리법회를 통해 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가르침을 주시는 김병희법사님을 만나 상임지도 법사로 모시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해 나는 불교통신대학 포교학과에 입학 88년도에 졸업하고 포교사가 되었다. 졸업식날 부처님전에 더 많은 포교를 발원하고 전국 기관차 사무소에 범우회를 창립시키는 일로 매진하였다. 그 결과 전국 109개소중에 11개소에 불교범우회가 창립하게 되었다. 지금은 각자 나름대로 법회를 잘 이끌고 포교도 잘하고 있기에 나는 다른 일을 찾아 나섰다.

우리 법당에 어린이법회를 시작하는 일이었다. 1992년 청량리선원어린이법회를 창립하고 1993년 중교동부를 창립하여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법회를 하고 있다. 금년 7월 17일

‘일체 유심조’ 교훈삼아서 포교전법 실천 ‘기관차 사무소 범우회’ 산파역할에 감사

은증경이었다. 불교하면 불교이냐하고 질문이 많으면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던 나에게 뜻밖의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다. 불교에 이렇게 자상하고 인간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서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부처님 말씀을 배우기로 작정하고 불교입문서와 스님들이 쓰신 책을 다치는 대로 공부하면서 불교를 여러사람에게 알려 주었다고 생각하고 포교하기로 마음먹고 나선 것이다.



이 청량리기관차불교범우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포교하고 왔고 부처님 자비실현한다고 수선을 떨었는데 잘하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직장내에 불자들의 의식을 바꾸어 놓았고 불교를 바로 인식시킨 일 등과 부처님오신날 직장 청사주위에 연등 2백여 개를 밝혀도 타종교 간부들도 말하지 않는 점 등. 그리고 불자가 언제나 나와 뜻을 함께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이야기 불교가 같이 불교공부하자고 설득하여 40명을 모아 범우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아는 스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비번 날이면 이리저리 뒤졌지만 인연을 만나지못해 애를 태웠다. 그런데 전생의 인연인가 전생의 복덕인가 한정섭법사님의 연락처를 알게되었다. 수소문하여 찾아가니 불교통신대학 서울사무소였다.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니 기뻐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참 장차하며 힘닿는 데까지 도울테니 열심히 해보라는 말씀과 함께 창립법회 날짜까지 잡아주시며 격려해주셨다. 그대의 기쁨은 지금도 있을 수가 없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부처님의 위신력이었다.

이렇게해서 1985년 7월 17일 청량리 맘모스호텔에서 안덕암 큰스님을 모시고 그야말로

지금의 후배들에게 범우회 운영을 맡기고 나는 또다른 일을 찾아 나선다.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포교사·법사회 사무국장직을 맡아보고있다. 지금 우리 교계에는 법사흥수 속에 법사부족현상을 맞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개인과 단체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인연따라 힘 따라 조직하고 교육해서 이 땅에 법법을 올바르게 펼쳐도 대표종단인 조계종에서 포교와 교육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운 마음자세로 정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보니 다행으로 생각하며 기대되는 바 크다.

부처님께서 간곡히 당부하신 포교전법을 실천하는 것이 불자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포교 전법하는 일도 수행이고 그 속에도 깨달음의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불교성지순례

효도관광

태국	5일
관입정: 방콕(아유타야 불교유적지, 새벽사원, 에메랄드 사원, 황금불사원, 대리석 사원, 왓트 수상시장, 왕궁, 2박) - 파타야(미니시암, 농뿔빌리지, 산호섬, 2박)	
관출발일: 4월 13, 19, 20, 26, 27 / 5월 3, 4, 10, 11, 17, 18, 24, 25, 31	
관동참금: ₩ 595,000	

대만	4일, 5일
관입정: 일월담(1박) - 고평 - 불광사(1박) - 화련(태로각, 장춘사, 1박) - 타이베이(고궁 박물관, 충열사, 용산사 1박)	
관출발일: 4월 14, 18, 21, 25, 28 / 5월 2, 5, 9, 12, 16, 19, 23, 26, 30	
관동참금: ₩ 530,000 (4일) ₩ 595,000 (5일)	

방콕·파타야	5일
₩ 569,000	
방콕·푸켓	5일
₩ 649,000	
동남아 3국	5일
₩ 655,000	

미얀마·태국	8일
관입정: 양곤(1박) - 파간(쉬에지곤 탑, 마누하 사원, 1박) - 만달레이(백만불사, 보디타라웅, 마하무니 파고다, 만달레이 힐, 2박) - 양곤(세다곤 대탑, 까베에 파고다, 1박) - 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 왓트 황금 불사원, 대리석 사원, 수상시장, 2박)	
관출발일: 4월 19, 26 / 5월 3, 10, 17, 24, 31	
관동참금: ₩ 1,400,000	

스리랑카	6일
관입정: 콜롬보(강가라마 사원, 1박) - 캔디(불치사, 1박) - 하바라나(시기리야성, 풀론나루와, 1박) - 미린달레(아누라다푸라(관광) - 풀롬보(1박) - 기네(1박)	
관출발일: 4월 18, 25 / 5월 2, 9, 16, 23, 30	
관동참금: ₩ 1,070,000	

대만·화련	4일
₩ 495,000	
홍콩·마카오	4일
₩ 529,000	
홍콩·방콕·싱가포르	8일
₩ 995,000	
방콕·푸켓·싱가포르	6일
₩ 795,000	

인도·네팔	10일
관입정: 델리(붉은성, 간디 기념비, 2박) - 아그라(타지마할, 1박) - 카주라호(카주라호 사원, 1박) - 바라나시(켄지스 강, 사르나트 박물관, 2박) - 카트만두(티벳사원, 쿠마리 사원, 2박) - 방콕(1박)	
관출발일: 4월 14, 21, 28 / 5월 5, 12, 19, 26	
관동참금: ₩ 1,990,000	

인도·네팔·스리랑카	9일
관입정: 카트만두(쿠마리 사원, 티벳사원, 2박) - 델리(간디 기념비, 1박) - 아그라(아그라성, 타지마할, 1박) - 기네(1박) - 캔디(불치사, 풀론나루와, 1박) - 풀롬보(1박) - 방콕(에메랄드 사원) - 기네(1박)	
관출발일: 4월 15, 22, 29 / 5월 6, 13, 20, 27	
관동참금: ₩ 1,895,000	

하와이	5일
₩ 699,000	
지중해 일주	20일
₩ 4,650,000	
중남미 일주	20일
₩ 4,980,000	

여행조건 0인 이상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불교 성지 순례 전문

21세기를 지향하는

(주) 아태관광

국외 여행업 제 817 호

☎ 732-3200 (대)